



협회를 중심으로 전력기술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때



회장 안인순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이회범 자원정책 실장님!

대법원 전 대법관이셨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백의 상임고문이신 천경송 변호사님!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지철근 회장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이준웅 회장님!

그리고 한국직능단체 총연합회 문상주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관단체장님과 내외 귀빈, 원로 선배님과 고문, 전·현직 이사, 지회장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협회 창립 4주년 기념식에 이처럼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임·직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1963년 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모태로 1975년에 대한전기기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80년 정부의 유사단체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한전기협회와 통합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1990년 대한전기기사협회를 재창립하여 전력기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오던 중 1995년 12월 30일 제14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법정단체로 창립되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정으로 우리 전력기술인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역의 독자적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전력기술인의 결속을 다지고 전력산업계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최근, 전기계는 각종 규제 완화, 전기공학선택의 기피현상, 각 대학의 학부제 편성,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전문가인 전기기술자의 양성 저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기소비량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발전량이 8,000만kW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전기의 원

활한 공급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전력기술인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은 제도가 폐지·완화되었지만, 그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은 부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난 9월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우리 협회는 합심, 단결하여 재심을 신청, 건축법 개정안인 “건축법에 의한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로 본다”는 개정안을 규제개혁 위원회 본회의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산업자원부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의 위기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및 전기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제가 금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때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은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다음 사항을 추진하는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협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협회의 운영지표를 “회원의 협회, 회원에 의한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로 설정했고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전기설계·공사·감리·안전관리 및 대행사업체 등 모든 회원이 각 업역에서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협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따른 업무처리의 공정화, 관리의 투명화, 그리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지향을 목표로 ISO9001인증 획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 협회의 도약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협회를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화하여 정보의 제공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켜 정보의 양방향 서비스시스템을 실현하고, 아울러 협회의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기술인의 수요 실태파악 능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회원의 직업안정 및 회원의 경력관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제반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협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회원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기술인 양성에 대한 투자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협회의 건전한 홍보와 전기관련법령상 회원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미래지향적인 협회상을 구현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이 협회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협회의 창립 4주년을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력기술인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1. 28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안 인 순



전력기술인의 명실상부한 구심체로서



자원정책실장 이 희 범

존경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안인순 회장님!

천경송 전 대법관님을 비롯한 지철근 한국 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님!,

이준용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장님!,

장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님!,

공창덕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님!

오필원 고문님, 장운격, 이재혁, 이경식 선임 부회장님!

그리고 원로 전력기술인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창립 4주년

을 맞이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오늘,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창립된 이래 온갖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안인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2대 협회장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인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독점성이 인정되던 전력 산업분야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력산업의 경우 한전의 독점체제를 단계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부분으로 분리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문화창달에 앞장서길 ...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을 현재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체제 도입과정에서 장·단기 전력수급의 안정과 그간 한전이 수행해 오던 각종 공익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전기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각종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전력기술인 여러분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력기술인 여러분!

오늘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까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전기계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전력기술인 모두의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회는 전력기술인의 명실상부한

구심체로서 새로운 전력기술문화창달에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전력기술인은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안전관리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 포상을 받게 된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행사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우리나라 전력기술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력기술인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1. 28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이 회 범